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신 수녀입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이 성경 구절과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유치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가진 것 없고 부족한 제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용기를 내어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바로 사도와 같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저에게 하느님께서 여러 과정을 거쳐 수도자의 길로 초대해 주셨고 1996년 입회했습니다.

입회 후에 시각 장애 특수학교인 충주성모학교에서 미술, 종교교사로서 오랜 시간 사도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시기에 저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장애를 넘어서서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의 기쁨과 열매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씨든영성센터에서 피정 지도와 미술치료사로서 청소년을 돕는 일을 하였고 이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강진에 기숙형 대안학교인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개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현재 교장으로 재직하며 미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개교한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는 한국에 파견받으신 미국 수녀님들의 첫 사도직이었던 '성요셉여학교'의 상호존중과 다양함의 인정,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은 학교입니다.

가톨릭 교육 철학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여,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호문화교육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배우고', '더불어 살고', '더불어 행동하는' 것을 토대로 마더씨튼께서 말씀하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학생들과 웃고 울었던 한 아쉬움 가득한 한 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의 개인적 부족함이나 학교운영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도들,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한 마더씨튼의 믿음과 두 관

구 수녀님들의 기도를 떠올리며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교직원들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lo, Sisters! I am Sr. Lee, Young Shin.

“I have no gold. But I will give you what I have. I speak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Stand up and walk.” (Acts 3:1-10) And we know that the man in the Bible jumped, and praised Him.

When I was in Kindergarten I heard this Scripture passag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n, these words have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me in my ministries: take courage to work in the name of Jesus, and move forward in the time of trials. I was also given courage to walk, jump, and praise with the love of God whenever I remember of these words.

When I was a child, I dreamed of being a missionary like Paul, the Apostle. God invited and led me to the way of religious life through many occasions. I joined our community in 1996. I worked as a teacher of arts and religion for a long time in St. Mary School for the Blind in Choongju.

The gift of grace that God gave me at that time was the joys and fruits of helping each student discover and grow beyond obstacles. Then I worked as a retreat director and helped young people as an art therapist in Seton Spirituality Center. Based on these



experiences, I was preparing to open St. Joseph Intercultural High School as an alternative residential school in Gangjin. Currently, I am principal and teach art.



St. Joseph Intercultural School opened this year with the spirits of mutual respect, diversity recognition, and the passion and love of education which were the characteristics of our first American Sisters missioned to Korea and who began St. Joseph School.



The intercultural school aims to practice Catholic education philosophy and build relationships among the students by respect of self and others. We also encourage them to learn to live and act together, so that they can grow into “citizens of the world” as Mother Seton says. One semester full of regrets and laughs is finished.



In the future, whenever I struggle with my limitations or economic difficulty in operating the school, I will remember the apostles who did miracles in the name of Jesus. I will also think of Mother Seton and our sisters who put their trust in God’s Providence. Please pray for our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to walk in the love and grace of God. Thank you!